

# “준비된 사람에게 내일이 있다.”



김건수 교장선생님

##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온다.”

이것은 요구르트하면 떠오르는 파스퇴르의 말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말은 인생을 좀 살 아보면 누구나 깨닫는 말 중 하나일 것이다.

푸치니의 오페라 아리아 ‘Nessun dorma’ (공주는 잠 못 이루고)를 부른 36살의 폴 포츠를 하루 아침에 세계적 스타로 만든 영국의 ITV 방송의 ‘Britains Got Talant’ 라는 프로그램에, 2009년 어느 날 블랙번이라는 자그마한 시골마을에서 왔으며, 세상에 태어나 키스 한번 못 해봤다는 48살의 수잔 보일이라는 뚱뚱한 몸매에 보잘 것 없는 노처녀가 출연한다. 그녀는 예전부터 전문가수가 되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걸 꿈꿔 왔지만, 시골에서 살면서 기회를 갖지 못 했으며, 뮤지컬 ‘캣츠’에서 ‘Memory’를 불러 유명한 일레인 페이지처럼 훌륭하고 멋진 가수가 되고 싶다고 말하자 심사위원들은 비웃는다. 그러나 그녀가 레미제라블의 ‘I dreamed a dream.’을 열창하자 심사위원을 비롯한 모든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열렬한 갈채를 보낸다. 가수의 꿈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왔다는 그녀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노래 연습을 했느냐고 묻자 그녀는 12살부터 내내 연습해 왔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지금 성공한 인생스토리과 함께 세계적인 가수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세계적인 명지휘자 토스카니니는 원래 첼로 연주자였으나 불행하게도 그는 아주 지독한 근시여서 악보도 잘 볼 수 없었다. 그래서 토스카니니는 관현악단의 일원으로 연주할 때마다 앞에 놓인 악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늘 미리 외워서 연주회에 나갔다고 한다. 그런데 한번은 연주회 직전에 지휘자가 갑자기 병이 생겨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생겼는데, 많은 청중들이 이미 객석에서 기다리고 있는 터라 연주회를 취소할 수도 없어 단장은 부랴부랴 단원 중에서 대신 지휘할 사람을 찾았다. 그때 오케스트라의 단원 중에 연주곡 전체를 빠짐없이 외우고 있는 사람은 오직 토스카니니뿐이었고 그가 임시 지휘자로 발탁되어 지휘대에 서게 되었다. 그때 그의 나이는 열아홉 살이었고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모든 사람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땀 흘려 준비하는 노력도 없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투덜대거나 남을 탓하곤 한다. 시련과 고통을 외면하고 당장의 안락함에 젖어있기 보다는 20년, 30년 후의 내 모습을 상상해 보자. 준비된 사람에게 늘 새로운 기회는 오는 법이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 더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오늘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자. 卍

